

2013 WEC 총회 국내유치 결의

에너지협의회 총회 · 이사회 개최

한국에너지협의회는 지난 9월 21일 한국전력공사 회의실에서 임원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한준호 회장(한전/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을 언급하고 에너지업계의 공동 해결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사 대표들은

2013년에 개최될 제22차 WEC 세계에너지총회의 국내 유치를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유치위원회를 조만간 발족하여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에너지업계 올림픽으로 불리는 WEC 총회는 100개국 이상 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에너지전시회도 동시에 열리며, 3년마다 개최한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임기 만료된 강창오 (주)포스코 사장과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이사로 재선임 하였다.

원승재 본부장, 발전산업전략 발표

WEC아태지역포럼, 나고야에서 개최

WEC 아태지역포럼이 지난 7. 11-13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되어 16개국에서 약300명이 참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원승재 중부발전 본부장, 박두재 한전 정책팀장, 이종진 원자력문화재단 실장, 이윤석 현대오일뱅크 과장 등 9명이 참석하였다.

‘장기에너지전망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아태지역의 중장기 에너지 수요전망 및 대응, 기후변화협상에 따른 대책 등 국가별 주제발표가 있었다. 원승재 본부장은 ‘교토의정서 발효와 발전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온실가스감축의 효율적인 대응은 환경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제

고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M. Naitoh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주제 강연을 통해, ‘아시아 지역은 해외 직접투자, 수출, 적극적인 기술수입과 고품질 노동력의 공급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향후 에너지 소비의 급증으로 공급의 취약성과 환경문제 악화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이러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역내 국가간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보 ‘일본과 아시아의 장기에너지전망과 과제’ 참조)



주제발표 - 원승재 본부장

김영훈 회장, WEC부의장에 피선

스리랑카, 2005 年次집행이사회 개최

WEC의 2005년도 年次 총회인 집행이사회 (Executive Assembly Meeting)이 지난 9월 4~9일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되었으며, 김영



김영훈 회장

훈 대성그룹 회장이 아태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담당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WEC는 지역별로 에너지 이슈가 다양함을 감안, 아시아 아프리카 북·남미 유럽 등 5개 지역을 대표하는 부의장을 1명씩 두고 지역차원의 Action Plan 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중반 정근모 前과기부장관이 부의장에 피선된 후 업계 CEO로서는 처음이다.

김영훈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역대 23개 회원국을 대표하여 WEC 임원평의회 참석, 회원국 회의 주재 및 지역 프로그램 총괄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영훈 회장의 피선으로 향후 국내 에너지업계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아시아지역 주요 국가들과의 에너지협력을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3년 WEC 세계에너지총회의 국내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EC 종합홍보전략 수립

금년도 회의에는 60여 회원국에서 280여명, 국내에서는 김호철 남부발전 감사, 이천호 한국석유제품질관리원 상무이사, 함종철 에너지협의회 사무총장 등 7명이 참석하였다.

김호철 감사는 아태지역 회원국을 대표하여 '홍보위원회' (C&O)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 위원회는 그동안 준비한 종합홍보전략을 이번 회의에서 발표하였다. WEC는 그 역할에 비해 국제적 지명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이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언론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WEC의 'brand value' 제고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에너지정책시나리오 개발

WEC는 2005-07 기간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2050 에너지정책시나리오' 개발에 상당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다수 발표된 장기전망 시나리오와는 개념이 다른 정책지향적 에너지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언론 및 정책결정자들에게 에너지부문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의도이다. 금년까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2006년에는 각 지역별 의견을 반영하여 2007년 로마총회에서 글로벌 리포트를 발표할 예정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본보 'WEC 에너지시나리오 2050' 참조)

차기 주요 WEC 회의는 2006. 5월 아태지역포럼 (중국), 9월 연차 집행이사회 (에스토니아), 2007. 11월 제20차 세계 에너지총회(로마) 등이 예정되어 있다.



WEC 2005 집행이사회